

폭염 피해 예방 행정력 집중

군산시, 무더위 휴식시간제 준수 권고·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

군산시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일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안전총괄과, 보건소, 경로당 애인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읍면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는 옥외작업 근로자 및 농민에게 열사병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가이드를 안내하고 폭염이 심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건설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준수를 권고했다.

또한, 경로당 복지회관, 금융기관 등 총 377개소의 실내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326개소에 대해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으로 냉방기 423대의 청소와 냉매 충전 조치하고, 관내 경로당 521개소에 냉방비를 지원한다.

이동이 불편한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게는 인부 진화해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야외 무더위쉼터 33개소에 폭염 저감 물품인 얼음물, 부채, 쿨 스카프 등을 지원하고, 살수차를 이용해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려 지열을 식힐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했고, 올해 20개의 그늘막을 추가해 현재 총 87개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온도·비람 등 주변 무더위 환경에 따라 지등으로 펼쳐져 햇빛을 가려주는 스마트그늘막을 2개소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냉물식물을 활용한 폭염을 막아주는 그린카튼과 그린터널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작년까지 시행했던 버스승강장 얼음비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지 않는다.

【군산=한경봉 기자



26일 익산시의회의는 익산소방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 대응체계 확립 협력

익산시의회, 소방서 방문 대원 격려 위문물품 전달

익산시의회의(의장 유재구)가 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와 코로나19·재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유재구 의장을 비롯한 의정단은 이날 긴급 구급 출동 등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위문물품을 전달했다.

또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폭염대응 119 구급활동 강화, 풍수해 대비 긴급 구조 대책 등에 대한 재난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중앙동 전통시장 침수피해에

따른 조속한 복구에 주력한 대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유재구 의장은 "코로나19 현장활동 시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의회는 해외연수비 1억2000만원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창덕 서장은 "비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대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찾아주시는 시의회 의정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종 재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익산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이제는 카드 한 장으로 편리해요”

군산사랑카드, 농협·전북은행 발급... 8월 신협 등 확대

군산시는 오는 8월 중순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된 군산사랑카드 발급을 농협, 전북은행에서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전년과 동일하게 총 5,000억 원을 발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발행비용 절감을 위해 중이상품권 규모는 전년 대비 22% 줄여 3,000억 원을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은 2,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연간 발행액의 60%인 3,000억 원을 발행·판매 완료했고, 조기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인당 구매한도를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 9월 출시된 군산사랑카드는 현재 1만2,400여 명이 가입하는 등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또는 은행에서 교통카드처럼 편하게 충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 발급과 충전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가능한 가운데, 인기에 힘입어 8월 중순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로 확대됨으로써 7개 지역화폐 판매점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시민의 관심과 편리성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역상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더불어 성장하는 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행을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힘과 시의 적극적인 상품권 유통기관 조성으로 지금까지 1조 3천억 원을 발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성산면 자사보협, 저소득층 홈케어 지원사업

군산시 성산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일 박병순)가 26일 27일 이틀간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35세대에 소득·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년 클린성산-저소득층 홈케어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산면 지역 특화사업인 홈케어 지원사업은 여름철 해충 퇴치 효과 등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가 높아 2019년 10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30가구,

올해 35가구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올해 홈케어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주택 내외부에 소득·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진행된 1차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서비스를 지원받은 한 대상자는 "주택 소독 이후, 눈에 보이지 않던 커다란 지네가 죽어서 발견되었다"라며, "혼자 사는 노인을 세심하게 살펴주어 울여름은 보다 청결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50대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군산시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3분기 우선접종 대상군인 50대 연령층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50대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 및 접종 일정은 먼저 지난 12일에 사전 예약한 55~59세 연령층은 당초 예정대로 2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접종을 한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은 지난 14일 오후 8시부터 재개하며 24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한 본인 및 대리인 예약과 전화 예약(1339, 콜센터 454-4950)으로 실시한다.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은 28일

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시행되며, 50~54세 연령층 접종 기간인 8월 16일부터 25일 사이도 예약해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50~54세 연령층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순차적으로 분산해 예약 시행하고,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을 고려해 접종은 오는 8월 16일에서 8월 25일까지 진행한다.

백종현 군산시보건소장은 "3분기 우선접종대상인 50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접종해야 할 대상자군에 대해 사전 예약 및 접종 일정 등을 안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민원상담실 코로나 진정시까지 운영 중단

군산시는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민원상담실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잠정 운영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민원상담실은 종합민원실 민원센터 내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의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활동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군산지역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6일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민원상담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즉시 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며, 중단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청년주택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익산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3.0%를 지원한다.

시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4가구를 선정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혼인 대학생·취업 준비생 등은 부모 연소득이 800만원 이하, 미혼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재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